고창군.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

을 위해 노력한다.

진단을 꾸렸다.

할 방침이다.

고창군은 행정안전부의 '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 솔루션'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'축산악취개선사 업'에 70개소 24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악취저감

통합솔루션은 '거품발생기'를 활용해 미생물제를

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군

산대학교 환경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솔루션 추

이들은 기존 '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회'를 '상생

협의회'로 확대해 민원이 잦은 농가와 농장별 악취

저감 시설현황 등 기준을 마련해 대상농장(10개소)

을 선정하고 매월 현장방문으로 사업성과를 확인

축산과 최순필팀장은 "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

문제 해결로 청정고창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축산

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"고 밝혔다. /안병철 기자

퇴비장에 덮는것으로써 '안개분무시스템'도 도입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에 따라 미세입자를 분사하며 노후화된 축사 운영에 따른 양돈농가의

악취민원 해결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.

# 군산시, 제1대 명장 유현자 지미원 대표 선정

19년간 전통 궁중음식 연구와 요리 분야 발전 공로 "요리산업 기술발전 힘써 군산 대표하는 산업 되어주길"

군산=백용규 기자

군산시는 20일 지미원 유현자 대표를 요 리분야의 군산시 제1대 명장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.

시는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 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우 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2 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공개모집 을 통해 군산시 첫 명장을 선정했다.

제1대 군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유현자

대표는 19년간 요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 통 궁중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요리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가 크다.

선정된 명장에게는 군산시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에 명장코 너 등재 등 숙련기술인을 홍보하고 판로개 척과 기술 전수 등 보급사업 참여를 지원

강임준 군산시장은 "앞으로 군산시 명장 으로서 후진양성과 요리산업 기술발전에 힘써 군산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"고 말했다.



### 진안군, '친구처럼 친근하게' 팬 · 주민과 소통 강화 임실군, 어르신 살기 좋은 맞춤형 효심 정책 확대

### 카카오톡 채널 오픈, 군정소식 공유

진안군이 팬·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 해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오픈했다.

20일 군에 따르면 팬·주민 등 구독자와 소 통 창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군정 주요소식과 축제, 행사, 재난 정보 등을 보다 빠르고 친근 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5대 소셜미디어 채 널 이외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개설했다.

군은 '친구처럼 친근하게'를 소셜미디어 채

널의 운영 기조로 삼고 유튜브 채널인 빠망 TV, 블로그, 카카오스토리, 인스타그램, 페이 스북 등 5개 채널을 통해 팬 5만1,346명과 소통해왔다.

올해 새롭게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은 진안 고원의 아름다운 풍경, 여행, 지역문화, 축제, 긴급 재난상황, 코로나19 긴급 안내사항 등 재난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.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카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. /양병채 기자

### 지역포커스

# 임실군, 여성농업인 문화 활동 지원

###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 확대

임실군이 올해에도 여성농업인의 문 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생카드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.
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여 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 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, 관절염, 건강관 리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 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 화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.

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중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~만 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, 가 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,000㎡ 미만 농 가뿐만 아니라 농업 외 타산업분야 사 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
생생카드 금액은 총 15만원으로 13만 원을 지원하며 2만원은 자부담이다.



단, 본인(여성농업인)의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 외되므로 읍·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사업 신청에 용이하다.

본 카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·학습활동 등에 전국적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 고, 타인에게 대여·양도할 수 없다. 또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 업축산과(063-640-2417) 또는 읍·면사 무소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. /박길수 기자

# 민선 7기 찾아가는 맞춤 복지사업

임실군이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효심 정책을 확대, 추진하면서'효심 행정 일번지'의 명성을 이어간다.

군은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4.1% 증가한 484억 원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맞춤형 어르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현재 지역 내 노인 인구는 1만여 명으 로 전체인구의 38%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.

이에 따라 군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 양한 효심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기 좋 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행정력을 쏟 고 있다.

민선 7기 공약사업인 '찾아가는 맞춤형 복 지사업'으로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심민 군수는 고령 인구가 많다는 지역 특 성을 감안해 일자리와 건강, 교통, 경로당 운 영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직접 챙 기며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확대 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먼저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비 73억여 원을 들여 총 2,042명의 어르신에게 올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맞춤형 일 자리를 공급한다.

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은 8억여 원 (8.9%), 일자리 수는 112개(9.4%)가 늘어난 수치다.

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을 위해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8개 읍 면 65세 이상 어르신 7,000여 명에게 목욕권 을 연 13매 지원하고 있다.

목욕비 인상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기존 4,000원에서 5,000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.

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비 2억5,000만원을 투입 해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에 승강기를 설 치, 시설의 안전성을 높였다.

또한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인 경로당에 5억2,000만원을 투입해 개보수 및 물품 지원 을 하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에 지원을 강화한다. /박길수 기자

고창군은 지난 19일 한국발사믹식초협회, 한국천 연발효식초생산자협회와 함께 식초산업 활성화와 식 초문화 저변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고창군, 식초 산업화ㆍ저변확대 업무협약

이번 업무협약은 식초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 젝트 기획, 기관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사업, 천 연발효식초와 발사믹 식초 가공제품 개발·생산지원 및 식초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문 화·관광 등을 홍보하기 위함이다.

한국발사믹식초협회는 발사믹식초 시장을 활성화 하고 한국형 K-발사믹식초 연구와 상품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, 생산기술, 교육 및 컨설팅, 상품화와 마 케팅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.

한국천연발효식초생산자협회는 농촌진흥청국립농 업과학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.

군은 이번 식초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 창 식초 산업화와 국내 식초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형진 식초산업팀장은 "앞으로 식초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 이며 군 식초 산업화와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 다"고 말했다. /안병철 기자



# 고창군, 풍수해보험 자부담 완화… 91%까지 지원

험 자부담비용을 완화한다.

20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에 있어 서 온실과 소상공인(상가,공장)에 대해 79%로 상향된 정부지원율과 군의 자체 추가지원을 통해 총 보험료의 최고 91%까지 지원받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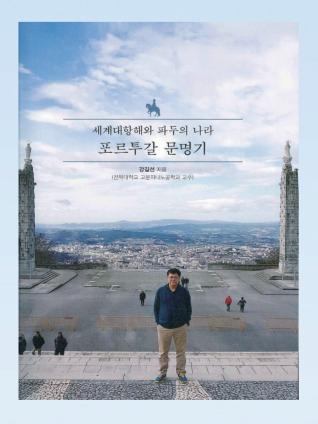
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가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.

지난해 신림면 이모씨는 개인부담 9,300 원의 풍수해 보험가입 후 주택침수 피해로 1,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7,402명였다.

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군이 가입자의 동 의를 받아 보험사와 단체보험 가입방식으로 가입하며 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 개 민영보험사 및 고창군 재난안전과와 읍·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/안병철 기자

##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, 예술,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.



## | 지은이 강길선 |

충남 홍성 출생. 인하 공대,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 생체의용공학 박사. 원래의 꿈은 세계 무전 여행가가 되는 것이었고, 다른 꿈이 있다면 돌아가신 선우휘, 이규태 기자처럼 목적성이 뚜렷한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. 잠시 이 꿈을 접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. 석·박사240여 명을 배출하여 10여 명의 교수를 양성하고 제약회사 · 화학회사에 100% 취직 시켰다. 미국 유학 시절, 미국 여행을 시작으로 틈틈이 세계여행을 시작하였다. 연구 분야가 줄기세포를 포함한 재생의학 분야라서 조직공학재생의학회라는 국내학회, 아시아태평양학회 그리고 세계학회를 창립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. 국제 공동연구 대학인 포르투갈의 미뉴대학교, 이탈리아의 트렌토대학교 등을 15차례 이상 방문하게 되었다. 그 가운데 포르투갈은 방문하면 할수록 신기한 나라였다.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책이다. 지금까지 75개국 1,500개 이상의 도시를 돌아다녔다. COVID19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푸른 하늘에 뿌려놓았던 꿈인 세계여행은 계속될 것이다. 포르투갈문명기 다음으로 돌로마이트 알프스 문명기를 쓰고 있다.

# 무전 여행가와 작가를 꿈꾸던 공학박사의 여행기

# 포르투갈 문명기



메일 주소:gskhang@jbnu.ac.kr, gskhang@gmail.com 페이스북 주소: http://www.facebook.com/gilson.khang



유라시아 대륙변방에 면적이라고는 9만㎢, 100만 인구에 불과하던 나라가 대항해를 시작한 지 200년도 안 돼 전 세계 최초로 '해가 지지 않는 나라'가 된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.